

이문구 관촌수필

▣ 이해와 감상

◆ <관촌수필(冠村隨筆)>은 연작소설이다. 『일락서산(日落西山)』, 『화무십일(花無十日)』, 『행운유수(行雲流水)』, 『녹수청산(綠水靑山)』, 『공산도월(空山吐月)』, 『관산추정(關山芻丁)』, 『여요주서(與謠註序)』, 『월곡후야(月谷後夜)』의 여덟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랜 타관 생활 끝에 고향에 들러 옛 터전을 둘러보며 떠오르는 감상을 위주로 쓰고 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은, 6.25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타관 생활을 떠도는 주인공이 그 때를 회상하면서 불행을 초래한 시대적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제목에 '수필'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작품이 하나의 회고담의 형식을 취하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소설적 구조를 꺾고 있다.

◆ 주인공 '나'는 조상의 성묘를 위해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다. 과거의 명문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사라진 고향을 확인한다. 그 과거의 한복판에 자리한 어른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명문 가문으로서의 명예심이 남달랐고,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며, 의기와 선비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던 분이다.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주인공은 보수적 정신, 선민의식을 교훈으로 받았으며, 그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작가정신은 다분히 복고주의적이라 해도 좋다.

◆ 이 소설의 미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체이다. 고풍스런 말투, 한학적 소양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어구, 명문의 후예로서만 알 수 있는 세간과 풍습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제재가 그럴더라 해도 이렇게 여실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능란하게 구사하는 것은, 작가 스스로가 그런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 '나'가 고향 방문을 통해 받는 정서는 아픔이다. 실향민이란 말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아픔이다. 그것은 물론 시대적 아픔(전쟁)의 소산이다. 전쟁은 이 긍지 높은 가족사를 단절시켰고, 그 상흔은 실향민 의식으로 남아 그를 여전히 괴롭힌다. 그가 아픔을 지속하는 한 전쟁의 참혹함은 계속된다. 작가는 이 자전적 소설에서 명문 후예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젖어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이 복고적 정신으로 그려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 이 소설은 논란의 소지도 많지만, 급격한 시대 변화로 과거의 모든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내면에 아직도 드리우고 있는 전통적 생활의 품격 높은 일면은 하나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 명문의 가풍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드높은 정신적 기풍의 높이를 지녔던 것도 사실이다.

◆ 고풍스럽고 현란한 문체, 명문의 후예 의식

이 소설의 미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체라고 할 수 있다. 고풍스런 말투, 한학적 소양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어구, 명문의 후예로서만 알 수 있는 세간과 풍습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제재가 그럴더라 해도 이토록 여실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능란하게 구사하는 것은, 작가 스스로가 그런 생활에 젖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자(字)는 긍우(肯宇), 호를 능하(陵河)라 했으며, 병오(丙午)생으로 상주 목사(尙州牧使)의 아들이요, 강릉 부사(江陵大都護府使)의 손자로 태어났었다. 그러나 과거(科擧)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 그 즈음엔 이미 선조들이 모두 벼슬살이를 반납하고 낙향해 버린 뒤였고, 공부를 중단해야 할 만큼 의기(意氣)와 가산이 침체돼 그럭저럭 실기(失期)해 버리고만 것이라 했다. 때문에 벼슬자리에 못 오른 건 시국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불운(不運)함을 한탄했으며, 그러한 한(恨)이랄까 전조(前朝)에의 향수랄까, 하여간 그런 감상이 지나쳐, 종종에서 한창 명성을 떨쳤던 두 항렬 손위인 월남(李商在)의 개명(開明)마저 늘 못 마땅하게 여길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할아버지의 처신은 월남(月南)의 처세와 정반대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 소설을 읽어 가는 가운데 고풍한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소설이 노리는 미학의 일면이다. 물론 이 문체에는 위에서 말한 전통적 관념의 세계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나??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좌절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체성을 잃고 아픈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나??가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한 영원히 실향민으로 남게 될 비극을 예감할 수 있다.

◆ 지속되는 전쟁의 아픔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墓)들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험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나??가 고향에서 받는 정서는 아픔, 그것이다. 그것은 ??실향민??이란 말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상실이다. 그것은 물론 시대적 아픔의 소산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국 전쟁은 이 주제와 맞물려 있다. 전쟁은 이 금지 높은 가족사를 단절시켰고, 그 상흔은 실향민 의식으로 남아 그를 여전히 괴롭힌다. 그가 아픔을 지속하는 한 전쟁의 참혹함은 계속된다. <일락서산> 한 편에 국한하면 이 아픔이 그렇게 극명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연작들의 전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에피소드의 서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쟁의 상처는 중심을 이룬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소설적 성취라고 할 만한 이 작품은 전쟁의 아픔을 가족사의 몰락으로 보여 준다. 그의 가족사가 자랑할 만하고, 역사적 전통성을 가졌을 때, 이 전쟁의 부정적인 면은 더욱 부각된다. 그것은 반역사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자전적 소설에서 명문 후예로서의 금지와 권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젖어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이 복고적 정신으로 그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이 소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급격한 시대 변화로 과거의 모든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내면에 아직도 드리우고 있는 전통적 생활의 품격 높은 일면은 하나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 명문의 가풍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드높은 정신적 기풍의 높이를 지녔던 것도 사실이다.

▣ 핵심정리

■ 배경 : 6.25직후 충청도 관촌(갈머리) 마을

■ 시점 : 1인칭 주인공

■ 성격 : 자전적, 회고적, 순수 소설

■ 주제

?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급속히 사라져 간 전통에 대한 비감, 아픔

? 따뜻한 인간애의 추구.

? 따뜻한 공동체적 삶의 파괴, 농촌의 어려움

■ 인물

? 나 -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물 (서술자)

? 웅정이, 대복이 - 토속적인 인물

? 석공 산씨 - [공산도월]의 주인공. 6 25 때의 부역 사실로 5년간 복역 후, 마을 일에 앞장서 성실하고 억척스럽게 살다 요절한 비극적 인물

■ 의의 : 농촌 문제를 비교적 사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유있고 걸쭉한 입담과 해학으로 접근한 농민소설의 전범

■ 관촌수필 구성

<'관촌수필' 전체 내용>(전8편의 연작소설 형태)

1편. 일락서산(日落西山) : 나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할아버지와 옛날 어린 시절 고향 풍경을 향수조로 엮음

2편. 화무십일(花無十日) : 6 25전쟁을 통한 윤영감 일가의 수난사, 비극적 관계를 회상

3편. 행운유수(行雲流水) : 성장기에 함께 했던 웅정이의 결혼 생활, 인생유전을 가슴 아프게 그림

4편. 녹수청산(綠水靑山) : 대복이와 그 가족에 얽힌 이웃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이 퇴색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

5편. 공산도월(空山吐月) : 왕조 체제의 억압적 구조 속에 신음하면서도 서로 돕던 백성의 전형을 석공(石工)을 통해 보여 줌

6편. 관산추정(關山芻丁) : 포근하던 한내(大川)가 도시에서 밀려들어온 소비문화와 퇴폐의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그림

7편. 여요주서(與謠註序) : 아버지의 병구완을 위해 잡은 꿩 때문에 자연보호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를 당함

8편. 월곡후야(月谷後夜) : 벽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을 둘러싸고 동네 청년들이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

▣ 이문구 관촌수필

▣ 이해와 감상

이문구의 소설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점차 상실되어 가는 전통적 삶의 숨결과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다루고 있는 세계는, 근대화의 물결에 후광을 얻는 도시적 삶이 아니라 근대화의 음지에 해당되는 도시 변두리나 농촌의 변화된 현실이다.

그리고 그의 소설들은 단순히 그가 다루는 토속적인 세계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는 변화의 실상과 양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다루면서도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낭만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갈등과 불화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작가의 시선이 응집되어 있다.

이 ??관촌수필??에서도 이러한 이문구의 소설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고향을 무대로 하면서도 고향의 복고적 취향이나 전통적 인간의 삶을 다루지 않고 그 이면에 놓인 변화의 구체적 정체를 밝히면서 변화 속에서 겪는 인간적 갈등과 변모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려는 점이 그것이다.

▣ 핵심 정리

- * 배경 : 60년대, 산업 근대화의 미명 아래서 점차 무너져 가는 전통적 농촌.
-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주제 : ‘근대화’로 인해 붕괴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통한 따뜻한 인간애의 추구.
- * 구성

◇ 1-5편:작가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그림.

- ①?일락서산(日落西山)?
- ②?화무십일(花無十日)?
- ③?행운유수(行雲流水)?
- ④?녹수청산(綠水靑山)?
- ⑤?공산토월(空山吐月)?

6편:어린 시절의 고향 친구를 만난 이야기.

- ⑥?관산추정(冠山秋情)?

7-8편:커서 고향을 돌아보며 체험한 내용.

- ⑦?여요주서(麗謠註書)?
- ⑧?월곡후야(月谷後夜)?

* 출전 : [현대문학](1972~1977)

▣ 줄거리

▶제1편 ?일락서산(日落西山)? : 연작 소설 8편 중 첫 번째 발표작.

억압받고 무시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인물들을 그렸던 종래의 작품 성향을 벗어난 작품으로, 옛모습을 찾을 길 없는 고향을 찾아가, 전형적인 조선인이었던 조부와 과격한 좌익 사상으로 희생된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그늘에서 외로운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는 오랜 타향살이로 인해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나?에 이르는 3대를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오늘의 한국 지식인의 성격 단면을 파악하게 된다.

▶제2편 ?화무십일(花無十日)? : 연작 소설 8편 중 두 번째 작품.

피난민 일가에 대한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박고 있는 전통적 삶의 인간미를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제5편 ?공산토월(空山吐月)? : 연작 소설 8편 중 다섯 번째로 발표된 작품.

??관촌수필?? 연작 가운데 가장 감동 깊은 작품으로 평가되며, 성실하게 살다 간 어느 청년(석공 신씨)의 이야기이다.

웅점이나 대복이 등 종래의 ??관촌수필??에 등장했던 토속적인 인간상보다 약간 세련된 인물로서 그의 이름은 신씨(申氏)이다. 직업은 석공(石工)인데, 그는 선산(先山)의 유택을 치장해 주는 등 ?나?의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신씨는 6·25 때 부역을 한 일로 인해 5년간 형무소 살이를 했고, 출옥 후에는 마을의 온갖 굶은 일

을 도맡아 하면서 억척스럽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37세의 한창 나이로 요절(夭折)함으로써 ?나?의 뇌리에 극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비극 속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으며, 불우한 세대에 불우하게 끝나 버린 삶의 통분이 있다.

▶제6편 ?관산추정(冠山秋情)? : 연작 소설 8편 중 여섯 번째로 발표된 작품.

전통적인 마을 안을 흐르는 '한내(大川)'가 도시 소비 문명으로 인해 점차 파괴되어 퇴폐적 하수구로 변하게 된 실상을 그리고 있다.

▶제7편 ?여요주서(麗謠註書)? : 연작 소설 8편 중 일곱 번째로 발표된 작품.

중학 동창인 친구가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평을 잡아 팔려다가 발각되어 공권력에 시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 분석의 핵심 : 작품의 사건 자체는 이해가 어렵지 않다. '도깨비불'을 중심으로 과거 어린 시절의 생각과 어른이 되어 느끼는 심정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는 '도깨비불'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이 **'반가움, 즐거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도깨비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무거운 심정이 된다. 이를 통해 인물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문제도 평이한 수준이나 44번이 77%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70%의 정답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끝부분 쪽의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비가

▣ 본문 감상

1. 반 밤등 혼자 이러

한밤중에 혼자 일어 문노라 이 내 꿈아

→ 화자가 소현세자를 만난 꿈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 온고

→ 청나라가 건국된 곳(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끌려 간 곳).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빈듯 하여라.

→ 학을 탄 신선의 모습. 여기서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 (해석) 한밤중에 혼자 일어 문노라 이 내 꿈아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 온고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빈듯 하여라.

* 한밤중 : 야반(夜半) * 요양 : 청나라가 건국된 곳.

⇒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에 대한 그리움

2. 풍설 석거친 날에

풍설(風雪) 석거친 날에 문노라 북래사자(北來使者)

→ 병자호란을 겪은 뒤의 참담한 상황을 암시

→ 왕세자 등이 볼모로 잡혀 가 있던 청(淸)나라의 심양에서 온 사자(使者)를 말함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언매나 치오신고,

→ '소해(小海)'는 왕세자를 뜻하며 '용안(容顏)'은 얼굴의 높임말로 소현세자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계워 하노라.

→ 조선(치욕을 당한) 외로운 신하(화자 자신)

⇒ (해석) 눈보라가 뒤섞여 몰아치는 날에 북쪽 심양에서 온 사신에게 문노라.

(볼모로 끌려 가 계신) 왕세자의 낯빛이 얼마나 추워하시던가?

고국에서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 외로운 신하는 (서럽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노라

⇒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에 대한 걱정

* 북래사자(北來使者) : 북쪽 심양에서 온 심부름꾼(사자)

* 소해용안(小海容顏) : 우리나라 왕자의 모습

* 고국(故國)의 : 고국의 다음에 생략된 말 : '국치(國恥)에도'

* 고신(孤臣) : 필자 자신

3. 후생 죽은 후에

후생 죽은 후에 항왕(항우)을 누가 달랠 것인가.

楚軍(초군) 三年(삼년)에 艱苦(간고)도 그지없다.

→ 초나라 군사 → 고생

어느 때나 漢日(한일)이 밝아 太公(태공)과 같은 賢臣(현신)이 나오게 할 것인가?

→ 한나라 세상 → 강태공 → 현명한 신하

⇒ (해석) 후생이 죽은 후이니 항우를 누가 달랠 것인가

초나라 군사된 지 삼년인데 고생이 한량없다.

어느때나 한나라 세상이 밝아 강태공과 같은 현명한 신하가 나오게 할 것인가

4. 박제상(朴堤上) 죽은 후에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리 없다

→ 임금의 걱정과 근심(신라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402년(실성왕 1) 왜(일본)에 내물왕의 아들 미사흔(末斯欣)을, 412년에는 고구려에 미사흔의 형 복호(卜好)를 볼모로 보냈다. 내물왕의 큰아들인 눌지왕이 왕위에 오르자 볼모로 잡혀 있는 동생들을 구출하려 했다. 왕은 신하들의 천거를 받아 당시 삼랑주간으로 명망이 높던 박제상을 보냈다. 먼저 고구려왕을 회유해 복호를 구출해 돌아온 뒤, 왜에는 자신이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 온 사람처럼 속이고 들어갔다. 미사흔을 구출해 미리 고국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잡혔는데, 왜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충절(忠節)을 지키다가 죽었다.)

이역 춘궁(春宮)을 뒤라서 모셔오리

→ 이역만리 청나라에 있는 소현세자

지금에 치술령 고훈(孤魂)을 못내 슬퍼하노라.

→ 박재상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望夫石)이 되었다는 전설

⇒ (해석)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사람 알리 없다

이성 춘궁을 뒤라서 모셔오리

지금에 취술령 고훈을 못내 설워하노라.

⇒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해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5. 모구를 돌아보니

모구를 돌아보니 衛(위)사람 어여쁘다.

→ 중국의 지명

歲月(세월)이 자로 가니 침출이 길었어라.

→ 너무 빨리 흐르니

이 몸의 헤어진 갓옷을 기워 줄 이 없어라.

→ 털가죽 옷

6. 조정(朝廷)을 바라보니

朝廷(조정)을 바라보니 武臣(무신)도 하 많구나.

→ 무척

辛苦(신고)한 和親(화친)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인고.

→ 고통스러운

슬프다 趙廐吏(조구리)가 이미 죽으니 參乘(참승)할 이가 없어라.

→ 윗사람을 마차로 모심

7. 구중(九重)달 밝은 밤의

九重(구중) 달 밝은 밤에 聖慮(성려) 일정(一定) 많으려니,

→ 임금의 근심 → 정말

異域(이역) 風霜(풍상)에 鶴駕(학가)인들 잊을소냐.

→ 신선같은 얼굴, 세자

이 밖에 억만 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 백성들

⇒ (해석) 구중궁궐의 달 밝은 밤에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려니,

먼 이역의 풍상에 왕세자의 수레인들 잊겠는가.

이 밖에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는구나.

⇒ **근심 많은 임금님에 대한 걱정**

* 성려 : 임금의 걱정.

* 일당 : 꼭.

* 학가 : 학을 태운 수레. 곧 임금을 비유.

* 분별하시는다 : 걱정하시도다.

8. 구렁에 낫는 풀이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 움푹하게 팬 땅

알을 이 없으니 그 아니 조흠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하노라.

→ 풀(의인, 선망의 대상) 걱정·근심을 이길 수 없구나(비분강개, 풀과 우리 대조)

⇒ (해석)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이 없으니 그 아니 조흠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하노라.

⇒ **우리(화자)의 걱정과 근심(병자호란의 치욕)**

9. 조그만 이 한 몸이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빛과 떠디니

→ 화자(자괴감과 무기력을 느낌)

오색구름 깊은 곳의 어느 것이 서울이고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갖아야 갈 길 몰라 하노라.

→ 비유[화자-검불(마른 풀)같은 화자의 모습(자괴감, 무기력)]

⇒ (해석)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으로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어진 곳 어디가 서울인가?

바람이 이리저리 구르는 검불같이 갈 길 몰라 하노라.

⇒ 연군지정과 자괴감(自愧-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

10. 이거사 어린 거사

이것아 어린 것아 잠말 마라스라

→ 어리석은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칠실(漆室)의 비가(悲歌)를 뉘라셔 슬퍼하리

→ 슬픈 노래(화자의 노래) 설의법(현실 비판적 - 어리석은 사람들은 치욕도 부끄러워하지 않음)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실람 풀까 하노라.

→ 막걸리(위로, 위안) 근심·걱정(비분강개)

⇒ (해석) 이것아! 어리석은 사람아! 부질없는 말 하지 말아라.

어두운 방구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를 누가 슬퍼하라.

어디서 탁주나 한 잔 얻어 이 시름을 풀어 볼까 하노라

* 칠실(漆室) : 매우 캄캄한 방

⇒ 현실비판과 국치를 당한 비분강개(悲憤慷慨)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 성격 : 비탄적, 직서적, 대조적

■ 특징 : 화자가 처한 현실을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 제재 : 소해용안(小海容顏), 소현세자를 걱정하는 마음

■ 주제

▪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悲憤慷慨)

▪ 볼모가 된 두 왕자에 대한 염려

▪ 우국 충정

■ 출전 : 송암유고(松巖遺稿)

▣ 이해와 감상

볼모로 잡혀간 왕자에 대한 걱정과 국치(國恥-나라의 치욕)를 당한 비분강개(悲憤慷慨)를 노래한 총 10수의 비가(悲歌)이다. 병자호란으로 볼모로 잡혀 청나라로 끌려간 두 왕자를 걱정하면서, 병자호란을 당한 치욕과 시름을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무기력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해와 감상

병자호란의 국치를 당하여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나머지 지은 '悲歌' 10수 중 둘째 수로, 볼모로 끌려 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의 신변 염려와, 비참한 국치(國恥)를 보고도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한 처지를 한탄하는 우국 충정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중장의 '小海'는 원래 우리 나라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두 왕자를 가리키며, '孤臣'은 자신을 가리킨다.

초장과 중장에서 작가는, 눈보라 치는 겨울에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에게, 청나라에서 소현세자가 추위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신하된 처지로서 세자의 이 같은 고생을 보면서도 차마 죽지 못하는 자신을 힐난하면서 비통한 감회를 표현했다.

이병기 풍란

▣ 이해와 감상

난초를 기르는 담당한 이야기인데 역사의 우여곡절이 그 위로 지나가고 있다. 이병기에게 난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다. 난은 가람의 정신세계의 한 부분 자체이며 따라서 난과 같이 고결한 지은이의 인간적 면모를 느끼게 하는 글이다 가람은 식민지 시대를, 해방 전후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시대를, 전쟁과 그 후의 궁핍을 난과 더불어 겪었고 난을 통해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려 했다.

곽란으로 고통받을 때 풍란이 하얗게 꽃을 피웠고 밤에 깨어 앉아 그 품과 향을 노래하는 시를 쓰는 모습은, 가람에게 난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수필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일반적인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할 때 이 <풍란>은 자신과 난초와의 인연을 차분하게 기술함으로써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고결한 기품과 정신의 깊이를 드러내주고 있는 좋은 글이다.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을/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느니>에 특히 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묻어난다.

▣ 이해와 감상

가람 이병기에게 난은 그의 정신 세계이자, 고결한 인간적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 글은 난의 일반적인 생태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난의 아름다움, 특히 방향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을 무아 무상의 별유세계(別有世界)라하여 자신의 생활과 난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난을 돌볼 수 없었던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여 개인사의 시련과 고통을 난의 시련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작자는 난이 지닌 기품과 방렬(芳烈)한 향(香)을 담담하게 기술한다.

이 글에서 지은이는 고달픈 생활에 여념이 없을 때 난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었고, 역사적·개인사적 시련기에 처했을 때는 난도 역시 고해(枯骸)만 남게 되어 자신과 난과의 인연은 고결한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표상한다. 난의 이러한 속성은 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타나며, 기품과 향기가 동일한 깊이를 지닌 사람은 난초의 품과 향을 안다고 하면서 정신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작자는 난초에 대해서 인격적 친화감을 가질 정도로 오랫동안 난을 가까이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 난초라는 자연물을 통해 지은이가 드러내려는 관조의 세계는 지극히 고상하고 해맑은 성정의 세계이다. 부질없는 속물 근성을 경계하면서 높고 청아(清雅)한 경지를 난과의 인연에서 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필이 인격의 표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 보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글을 읽고 법정이 난에게 가졌던 관점과 가람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으면 보다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 핵심 정리

- * 형식 : 경수필
- * 성격 : 관조적, 예찬적, 체험적
- * 문체 : 간결체
- * 제재 : 난초
- * 주제 :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 * 출전 : <원광문화(圓光文化)>(1954)

| | | |
|----|---------------------------|-----------|
| 처음 | (나는 난을 - 얼면 바로 죽는다.) | 난에 대한 친화감 |
| 중간 | (이전 서울 계동 - 벌써 네 해가 되었다.) | 난을 길러온 과정 |
| 끝 | (십여 일 전 나는 - 정신을 기르지 않는다) | 난에 대한 사랑 |

* 구성 :

★ 난초를 예찬한 작품들

이병기의 <난초> 이병기의 <풍란>

<난초>에서는 난의 외양과 본성을 예찬하고 있으며, 수필 <풍란>에서는 난 기르기의 어려움과 난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정신을 기르는 식물임을 말하고 있다. <난초>의 종장에서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 받아 살기 때문에, 난이 정신을 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난초> 고결, 청초한 기품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 하여,

정(淨)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않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이병기 : '난초'>

언젠가는 마다고 뿌리치고 돌아서 가든 너 뒷모습이 시방 여기 와 이리도 청초(淸楚)한 치마폭을 휩싸고 썼는가. 어느 작가가 너를 아끼어

청자분에 옮겨 수유 산방(水籟山房)에서 삼동(三冬)을 같이 날적에, 꽃피면 아내방에 두리란 말을 듣자 잠시 아미를 숙인 채, 차마 말을 못하고 새침한 눈시울에 이슬이 맺히더니.//

그래선지 추운 동짓날 밤엔 맺히고 맺힌 설움을 한꺼번에 울음으로 새우고, 오늘 아침에는 뾰로통한 얼굴이 끝내 병긋한 웃음으로 터지고 만 단정(丹貞)한 꽃잎엔 매섭도록 차가운 결심이 맺혔다.<박기원 : '난'>

▣ 본문 감상

나는 난(蘭)을 기르던 20여 년 20여 종으로 30여 분(盆)까지 두었다. 동네 사람들은 나의 집을 화초집이라고도 하고, 난초 병원이라고도 하였다. 화초 가운데 난이 가장 기르기 어렵다. 난을 달라는 이는 많으나, 잘 기르는 이는 드물다. 난을 나누어 가면 죽이지 않으면 병을 내는 것이다. 난은 모래와 물로 산다. 거름을 잘못하면 죽든지 병이 나든지 한다. 그리고 별도 아침 저녁 외에는 아니 찌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길러 보고야 그 미림이 난다 하는 건, 첫째 물 줄 줄을 알고, 둘째 거름 줄 줄을 알고, 셋째 위치를 막아 줄 줄을 알아야 한다. 조금만 촉랭(觸冷)해도 감기가 들고 뿌리가 얼면 바로 죽는다.

이전 서울 계동(桂洞) 홍술헛골에서 살 때 일어났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讀書),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古書)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한희의 별유 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無我無想)의 경지(境地)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 해 여산(礪山)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어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난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숲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養士齋)에 있으면,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盆)을 주었고, 고경선(高敬善)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그것으로서 잎이 넓죽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객란(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니,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 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이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이하고도 여린 자연(紫烟) 빛이다.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을,

숲 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阮堂)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귀자·계수 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진귀(珍貴)하다.

'간죽향수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古書)도 없고, 난(蘭)도 없이 되잖은 서화(書畫)나 붙여 놓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어휘와 구절풀이

- * 매림 : 경험을 통해 얻은 묘한 이치. 요령
- * 촉랭(觸冷) : 찬 기운이 몸에 닿음
- * 왕왕(往往) : 이따금. 때때로
- * 방렬(芳烈) : 향기가 몹시 짙음
- * 고해(枯骸) : 말라 죽은 형체
- * 객란(亂) :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 * 청상 : 맑고 시원함.
- * 자연(紫燕) : 보랏빛 연기
- * 영롱(玲瓏) : 광채가 찬란함. 금옥이 울리는 소리가 맑고 산뜻함
- * 완당 : 조선 말의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인 김정희의 호.
- * 한묵연 : 문헌·필묵과의 인연
- * 간죽 향수 문주인(看竹向須問主人) : 대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모름지기 그 주인을 묻는다. 즉 주인의 지조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임
- * 요릿집 : 허장 성세(虛張聲勢)뿐이고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비유한 말
- * 두실(斗室)와옥(蝸屋) : 매우 작은 집.
- * 삼공(三公) : 삼정승.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을 이름
- * 거름을 잘못하면 - 아니 쪼여야 한다 : 난 기르기의 어려움을 나타낸 대목
- * 적어도 10년 - 미립이 난다. : 난초는 적어도 10년 이상 길러 봐야 경험에서 얻는 묘한 이치와 요령을 깨닫게 된다.
- * 독서(讀書), - 길렀던 것이다. : 책도 읽고, 시도 짓고, 옛날 서적도 사 들이고, 그러는 틈틈이 난초를 길렀다는 의미. 작자의 고결한 선비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 *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 아름답고 짙은, 시원한 향기가 떠돌아다닌다.
- * 잎이 뽀뽀하고도 - 바람으로 사노니 : 초장은 풍란의 잎을, 중장은 풍란의 속성을, 종장은 풍란의 성질을 노래하고 있다.
- *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 누추한 바탕 속에서도 고결하게 자라나는 난의 생태를 묘사하고 있다.
- * 꽃은 하이하고도 여러 자연(紫烟) 빛이다 : 꽃은 하이얀 빛을 띠면서도 보랏빛 연기의 색을 띠운다.
- * 잎이 - 바람으로 사노니. : 초장은 풍란의 잎과 뿌리를, 중장은 풍란의 속성과 꽃을, 종장은 풍란의 성질과 향기를 노래하고 있다.
- * 숲 속에 숨겨 - 아노니. : 비록 난이 숲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높고 조출한 난의 품과 향기로 인해 높은 인격자는 그것을 안다는 뜻으로 난초와의 친화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작자의 마음 자세를 시사하고 있다.
- * 완당 선생이 - 난복이 있다 : 완당 선생이 좋은 붓과 벼루를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에 빗대어, 자신은 난을 많이 키우고 좋은 난을 기르게 되는 연(緣)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 간죽향수문주인 : 대나무 향한 것을 보고 모름지기 그 대나무의 주인을 묻는다.
- * 두실와옥이라도 -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 작고 조출한 거처일망정 고서 몇 권, 난초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에 붓과 나눌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정승의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것인가!
- *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 : 작자는 고서, 난, 술을 삼공(三公)에 비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삼정승에 비할 바 없이 만족스러운 경지를 느낀다는 표현이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 줄거리

- (1) **유연수의 출생과 사씨와의 결혼** : 명나라 가정연간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연이라는 명신은 늦게야 아들 연수(延壽)를 얻는다. 유공의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를 제수받으나 연소하므로 10년을 더 수학하고 나서 출사하겠다고 한다. 천자는 특별히 본직을 띠고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한다.
- (2) **사씨, 아들을 못 낳자 교씨를 권하여 첩으로 들임** : 사씨는 유 한림과의 금슬은 좋으나 9년이 지나도 출산을 못한다. 이에 사씨는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기를 권한다. 유 한림은 거절하나 여러 번 권하자 마지못해 교씨를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여자로,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증오한다.
- (3) **교씨, 아들을 낳고, 동청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모함** : 교씨는 아들 장주를 출산하고는 자기가 정실이 되려고 마음먹고,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남편 유 한림에게 온갖 참소를 다한다. 그 후에 사씨도 아들 인아를 출산한다.
- (4) **교씨의 모함으로 사씨 폐출, 교씨 정실이 됨** : 교씨는 장애에 불안을 느껴 동청과 짜고 자신이 낳은 아들 장주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인아 있으니 이제 장주 필요없다’ 는 누명) 뒤집어씌운다. 유 한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결국 사씨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맞아들인다.
- (5) **교씨, 동청과 간통, 유 한림 유배시킴** : 교씨의 간악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의 전 재산을 탈취해 도망가서 살기로 약속한다. 동청은 유연수가 천자에 대해 불평한다는 소리를 엄 승상을 통해 고하게 하여 그를 유배시키는 데 성공한다. 유 한림을 고발한 공로로 태수(지방관)가 된 동청은 교씨와 함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
- (6) **유 한림 소환, 동청 처형** : 조정에서는 태자 책봉과 엄 승상 처형 과정에서 유 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려, 충신을 참소한 죄로 동청을 처형한다. 유 한림은 비로소 교씨와 동청의 관계에 속은 줄 알고 죄를 누우친다.
- (7) **사씨와 해후, 다시 정실로** : 고향으로 돌아온 유 한림은 사방으로 탐문하여 사씨의 행방을 찾는다. 한편 남편 유 한림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다. 사씨와 유 한림은 도중에 해후한다. 그리고 유 한림은 사씨에게 전죄를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 핵심 정리

★ 제목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의미

사씨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남편 유 한림이 조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이 작품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위해 ‘남정’이란 의미에 더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의미)

★ 창작 동기와 주제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반대하다 귀양을 가게 된 지은이가 숙종의 잘못을 풍간(諷諫: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배지에서 지은 것으로,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 소설

또, 작품 창작 동기를 왕에 대한 풍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권선징악을 통한 일부 다처 제도 비판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하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 소설의 주제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처첩 사이의 갈등'으로 보아, 쟁寵형(爭寵形: 서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 가정 소설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강조된 것은 여인의 덕행이다. 특히 사씨가 남편 한림에게 소실을 얻어 아들을 낳도록 주선해 준 일이나, 교씨의 간교로 인해 쫓겨났을 때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의 묘소에서 지낸 일 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덕(婦德)을 실행하려는 강인한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제는 쟁寵이러기보다 오히려 덕행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 | 역사적 사실 | 사씨남정기 |
|----|---------------------------------------|---------------------------------------|
| 인물 | 숙종 인현왕후 - 아들이 없음 장희빈 - 아들 균(경종) | 유연수 사씨(처) - 아들 인아 교씨(첩) - 아들 장주 |
| 사건 | 장 희민의 무고(誣告) | 교씨의 모해 |

| | |
|------------|----------|
| → 인현왕후의 폐위 | → 사씨 추방 |
| → 인현왕후 복위 | → 사씨의 복권 |

■ 갈래 : 고전소설, 가정소설, 풍간(諷諫)소설, 목적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문체 : 문어체, 산문체

■ 배경

▪ 공간적 - 중국, 금릉 순천부 유씨 집안, 사씨의 남정 행로

▪ 시간적 - 유연수의 출생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 사상적 - 유교적 세계관, 권선징악

■ 특징

▪ 조선조의 일부다처제가 빛은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

▪ 숙종(유연수)이 장희빈(교씨)에게 홀려 인현왕후(사씨)를 쫓아낸 것을 풍자, 숙종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목적소설

▪ 영웅소설이 고전소설의 큰 흐름이라면 이 작품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가정소설의 영역을 개척

▪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까다로운 한문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함

▪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함

▪ 당시의 제목이 대개 '전(傳)'으로 끝난 것에 비해 특이한 제목이다.

▪ 사씨는 조선 여성의 통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적극성 보여줌. ('이생규장전'의 처녀, 춘향, 박씨)

■ 주제

▪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謝氏)의 고행(苦行), 권선징악(勸善懲惡)

▪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권선징악

■ 등장인물

| | |
|---------|---|
| 사씨(사정옥) | 유연수의 부인.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후덕한 인품을 지니고 있음(유교적 여성의 전형. 조선 여성의 통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
| 임씨 | 유연수의 첩. 남경장사가 버리고 간 사씨의 아들을 구한 인물. 인덕과 자색 뛰어남. |
| 유연수 | 세 부인의 남편. 15세에 등과한 유능한 인물이지만, 교씨의 흥계에 넘어가 귀양가게 됨.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사씨와 다시 행복하게 삶 (5세에 등과했지만 판단력이 부족함. 가부장적 사회에서 봉건적 사고방식을 지닌 전형적 인물. 본성은 착하다.) |



| | |
|---------|--|
| 교씨(교채란) | 유연수의 첩. 사씨를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끝내 죽임을 당함(욕망 충족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인 악인의 전형.) |
| 동청 | 교씨의 정부(情夫). 교씨와 내통하나, 계책을 꾸며 유연수를 귀양 보낸 악인의 전형. 냉진과 교씨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죽음. |
| 납매, 심낭 | 교씨와 내통하면서 교씨의 악행을 조장하고 유인함. |
| 엄송 | 유한림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서는 승상. 간신. |

■ 구성 : 평면적 구성-시간의 순서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

▪ 발단 - 명나라 유현의 아들 연수는 15세에 한림학사가 됨

▪ 전개 - 유 한림과 결혼한 사씨는 애를 낳지 못하자 교씨를 첩으로 들이게 함

▪ 위기 - 교씨는 한림에게 사씨에 대한 온갖 참소를 함

▪ 절정 - 교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 사씨를 모함하여 정실이 된 후 한림을 참소하고 갖은 악행을 저지름

▪ 결말 - 교씨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한림과 사씨가 해후하여 교씨를 처형함

★작품 point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때,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로, 후처(교씨)의 모략으로 고생 하던 본처(사씨)가 고생 끝에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권선징악적 주제를 담고 있다. 나아가 조선 사회의 축첩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숙종 때 김만중이 유배지(남해)에서 지은 소설로, 인현 왕후 폐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즉, 장희빈 사건과 유사하여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부다처의 가정에서 일어난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 소설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어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즉, 교씨와 동청 등의 음모자들의 활약과 적나라한 욕망의 표출,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정실부인,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시비들의 역할 등은 후대 가정 소설의 모형이 되었다. 숙종은 유연수, 인현 왕후는 사씨, 장희빈은 교씨로 형상화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실부인 사씨를 고매(高邁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남)한 부덕(婦德 부녀자의 아름다운 덕행)의 소유자로, 첩 교씨를 간교한 여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립적 인물 설정은 여주인공 사씨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현 왕후를 옹호하다 귀양을 가게 된 김만중이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씨 부인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가치관이 봉건적 도덕성을 옹호하고자 했다는 한계성을 보인다.

작품 분석의 핵심 : 사씨남정기는 금번 수능을 합하면 총 3회 출제된 작품이다. 3회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평가원에서 **예상에 빚나가는 출제**를 하였다.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대부분 지문과의 내용 일치 문제로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지문에 주어진 상황이 특이하여** [사씨와 유한림이 시련을 겪는 부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출제되었다. 특히 사씨가 초월적인 인물-왕비, 장강 등을 만나는 부분은 지문의 앞의 내용을 모른다면 많이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이다. 출제 지문 앞에서 사씨는] **전체 줄거리를 모른다면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씨남정기는 매우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대부분의 수험생이 숙지하고 있었다.

출제지문 앞의 상황 : 교씨에게 모함을 받아 쫓겨난 사씨는 정처없이 떠돌다가 오래 전에 죽은 중국의 유명한 여사들[지조 절개를 지킨 훌륭한 부인들, 왕비, 장강, 반첩여 등]을 만난다. 그 부인들과 하직하고 나오니 자신은 기절해 있었고 그 부인들은 꿈에서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근처에 그 부인들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본문 감상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 냇강 짹짹 얼어조이던 밤에

→ **절망적인 현실 인식**

내가 부르던 노래는 강 건너갔소!

→ 시구의 반복, 변주(시상의 개폐기능)

→ (노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바람이 담김

→ (노래는 강 건너갔소!): 희망과 바람의 상실로 인한 절망적 탄식

⇒ **겨울밤 강 건너간 노래**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달은 곳

→ 부정적 현실로 절망의 공간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려서 갔소!

→ 절망적인 상황

→ (제비) 화자의 분신(희망, 꿈)

⇒ **사막까지 날아간 노래**

못 잊을 계집이나 짐조차 없다가

→ 그리움의 대상과 조국의 상실

가기도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나약한 존재로서의 화자

그만 어는 모랫불에 떨어져 타 죽겠조!

→ 절망적인 상황의 절정

⇒ **날개가 지쳐 떨어져 타 죽을 수도 있는 노래**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 부정적 시어의 의미 확장(사막):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당대에 대한 화자의 상황 인식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하는 밤**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도 곱게 짜내나니

→ 잃어버린 옛날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는 화자

한가락 여기두고 또 한가락 어데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간 무지개보다 고운 노래**

▣ 핵심 정리

■ 주제 : 자신이 추구해 온 삶에 대한 회고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 자신이 걸어온 길, 추구하던 가치 등을 “내가 부르던 노래”라는 시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강조차 얼어붙는 겨울밤, 자신이 부르던 노래는 그 현실을 넘어 하늘 끝 사막까지 날아갔음을, 어린 날개가 지쳐 떨어져 사막에서 타 죽었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극한적인 현실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의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했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1연: 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밤, 보름달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이 밤, 어둠 속에서 시적 화자가 노래를 부른다. 그의 희망과 바람과 꿈을 담아 노래한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더 이상 이곳에 들리지 않는다. 강 저편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삭막한 사막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배경이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며, 사막이라는 단어에서 숨막힘과 삭막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희망과 바람이 날아가 버렸기에 절망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인 집조차 없기에 그 상실감으로 인해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는 희망과 바람의 노래는 삭막한 사막 위를 날아가다, 더위와 피곤함에 지쳐서 떨어져, 불붙는 모래에 타 죽어버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무함이 느껴지며, 모랫볼에 떨어져 타 죽어버릴 희망을 보며 절망적 현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3연: 삭막한 사막은 푸른 하늘마저 덮어버린다. 하늘을 덮어버린 사막으로 인해 모든 것은 어둠으로 변해 버린다. 그 어둠 속에서 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슬퍼하듯 물기를 머금은 채 힘없이 빛난다. 푸른 하늘 마저 잃어버린데서 처절한 절망감이 느껴지며, 눈물을 머금은 별들에게서 슬픔과 아픔이 느껴진다.

4연: 어두운 밤에 홀로 앉아 지금은 잃어버린 옛날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는, 회상하는 화자가 보인다. 그가 부르는 희망과 바람의 노래는 그의 곁을 떠나, 여기저기로 어딘지 모를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를 떠나 강 저편으로 어둠 속으로 떠나가 버린다. 옛일을 마냥 앉아서 회상하는 그의 모습에서 허탈감과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잃어버린 희망으로 인해 슬픔과 안타까움, 절망이 느껴진다.

해석의 핵심: 금번 ebs 문학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연계가 되지 않은 작품이다. 작품해석이 난해하나 굳이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 현실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면 어렵지 않은 작품이다. 다만 이 육사의 다른 작품에서는 극복 의지가 주로 형상화된 반면, 이 시에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주로 나타난다.

시 해석의 핵심은 제목인 '강 건너간 노래'의 의미이다. '노래'를 이상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하고 '강'을 단절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기 힘든 암울한 현실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시구의 의미는 긍정,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구분하여 이해하면 된다. (제비 - 따뜻한 봄과 같은 이상, 밤 사막 - 암울한 현실)

김광규 묘비명

▣ 본문 감상

한 줄의 시는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시, 소설)→ 정신적 가치

★(시와 소설을 읽는 행위)→참다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반어적 풍자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 물질적 가치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반어적 풍자

(훌륭한 비석)→ 세속적 가치

⇒ 풍자적 대상으로서의 삶의 모습(가치 없고 세속적인 인물의 삶)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 그의 일생에 동조하는 曲學阿世(곡학아세)하는 인물(물질문명의 지배를 받는 인물, 물질적 가치를 숭상하는 인물)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 물질에 아부하는 사람의 풍자(무가치한 삶에 동조하는 세대 풍자)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 반어적 풍자

⇒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어질 거짓된 역사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 정의가 기록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역사적 울분과 반성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시인의 사명에 대한 자문

⇒ 역사와 시인에 대한 성찰

▣ 핵심 정리

★ 감상 POINT

이 시는 "시"와 "소설"로 상징되는 정신적 가치와 "묘비"로 상징되는 세속적 삶을 반어적으로 대비시켜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물질적 삶에 몰든 현대인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면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문적인 평이한 진술을 통해 일깨워 주고 있다.

■ 성격: 문명 비판적, 물질 문명 비판

■ 주제

▪ 세속적인 삶에 대한 비판(물질적 가치에 예속된 현대인의 삶 비판)

▪ 삶의 진실의 추구

★ 반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풍자성을 강화

▪ 시와 소설을 읽지 않고 행복한 사람 ⇔ 행복하게 산 사람(사실은 불행하게 산 사람)

▪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의 묘비명 ⇔ 훌륭한 비석(사실은 훌륭하지 않은 비석)

▪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묘비명 ⇔ 귀중한 사료(아무런 가치 없는 역사 자료)

▣ 이해와 감상(시인의 말)

시인들 가운데는, 릴케처럼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써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대인들이 작성하거나, 또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글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정표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인지, 동서양의 묘비명 가운데서 명문을 고른다면, 책 몇권의 분량이 넉넉히 될 것이다.

그런데 묘비명과 고인의 행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돈과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일수록 엄청난 호화분묘와 거창한 묘비명을 남겨서 욕된 이름을 영원히 기억시키려고 한다. 이 헛된 욕망을 어찌할 것인가

▣ 이해와 감상

시는 돈이나 지위와는 거리가 멀기만 한 것인가. 사람들은 시 한 줄이나 소설 한 권을 읽지 않고도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듯 근본적으로 외면되고 있는 시와 현대인들의 관계가 풍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풍자는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서글픈 느낌을 갖게 한다.

내면의 심정이나 감상을 표현하는 다른 대부분의 시와 다르게 이 작품은 지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감상이 절제되어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살다 죽어 비석을 세웠다'하는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삶에 대해 냉철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한 세계는 아니다. 오히려 권태롭고 갑갑할 정도이며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세계이다. 시나 소설을 모르면서 돈과 지위를 얻어 잘 먹고 잘 산다.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 묘비명이나 써 주고 있는 시인이나 다 풍자의 대상이 된다.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 볼 속에서도 그 훌륭한 묘비는 남을 테지만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그것은 이 시대에 시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같다. 이 시대는 시인이 살기에는 너무 어둡고 역사조차 진실을 기록할 것인가라고 의심되는 시대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부정적인 세계와, 그 속에 살면서 그 세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 사이의 기묘한 마찰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우울한 풍자로 나타난다. 시인은 현대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다는 것을 풍자하지만, 그 우울의 힘은 삶과 역사와 시인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그 힘은 깊은 인생론의 지혜와 시대에 대한 냉정한 고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통찰과 반성을 너무 분명하여 산문에 가까운 명쾌한 문장과 간결한 형태 속에 담아 내고 있다.

해석의 핵심 : 반어가 쓰였다는 것과 끝부분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시 해석의 핵심이다. 끝부분의 내용에서 묘비는 부정적 소재이다. 묘비가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된다면 역사는 기록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란 역사적 가치, 후대에 알릴 만한 것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 시의 묘비는 그러한 가치가 없다. 일제 때, 시와 소설은 시대현실과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대명사였다. [이 시는 일제 때 지어진 시이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시와 소설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묘비의 주인공은 시와 소설을 읽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했다. 이러한 묘비가 사료-역사의 재료로 남는다면 역사는 차마 이를 기록할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란 역사적 가치, 후대에 알릴 만한 것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